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치료 잘하는 병원
친절한 병원
청연한방병원

제8957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4 SINCE 1991 kjdaily.com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음력 6월 7일)

‘평화의 울림’…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 D-66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리허설 격인 ‘2025 우수 실업팀 및 해외 우수 선수 초청 국가대표 이벤트 매치’가 30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여자 리커브 국가대표 안산·강채영·임시현이 단체전 경기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결승전 열릴 5·18민주광장 ‘금빛 리허설’…대회 성공 예감

국가대표 이벤트 매치 실전 감각 익혀
현장 찾은 시민들 폭염속 열띤 응원전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2개월여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금빛 리허설’이 펼쳐졌다.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남녀 컴파운드 국가대표(최용희·김종호·최은규·소채원·심수인·한승연)와 리커브 국가대표(김우진·이우석·김제덕·임시현·강채영·안산)들은 30일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릴 5·18민주광장에서 이벤트 매치를 진행했다. 이날 이벤트 매치에는 국가대표 선수 뿐만 아니라,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남녀 일반부 우승팀인 울산 남구청, 인천시청팀, 그리고 대한양궁협회 초청 세계 컴파운드 우수 선수들도 참여했다.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뙤약볕 아래서도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명승부를 펼치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금빛 각오’를 다졌다.

임시로 마련된 관람석을 찾은 시민들은 광주 출신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10점 과녁을 명중시킬 때마다 “안산, 파이팅!”을 연호하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광주를 상징하는 5·18민주광장은 오는 9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뜻 깊은 장소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 슬로건 아래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예정이다.

광주를 찾은 ‘태극 궁사’들은 역사적인 현장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이벤트 매치가 끝난 후 안산은 “우선 당장 8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양궁 월드컵 4차 대회에 대비해 최대한 컨디션을 조절할 생각이다. 양궁 월드컵을 잘 마무리하고 스페셜 매치와 전지 훈련 등으로 바람에 적응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오늘 첫 경기인 단체전엔 바람에 익숙하지도 않고 날씨도 많이 더워서 고생했는데 쏘다 보니 바람에 점차 적응하며 확실히 조준점도 파악해 혼성경기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광주가 고향인 안산은 5·18민주광장 무대에선 소감을 묻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걸어다니고, 지나다녔던 곳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화살을 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광주 시민들께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열려 다소 부담은 되지만, 그만큼 더 노력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경기장에는 안산의 소속팀인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찾아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2면에 계속

/박희중 기자

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 결국 폐기

시의회 재표결 23명 중 10명 반대 부결
市 “지혜 모아 더 새로운 방안 모색”

광주시의회의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가 결국 폐기됐다.

광주시의회가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부결했다. 이날 재표결에는 시의원 23명이 전원 참여했으며 재의 요구안 가결 조건인 재석 의원 중 찬성 2/3를 충족하지 못해 조례안은 폐기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조례 재의 요구 과정에서 강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며 시의회를 비판하자 일부 시의원은 “시장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반발하는 등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재표결 직전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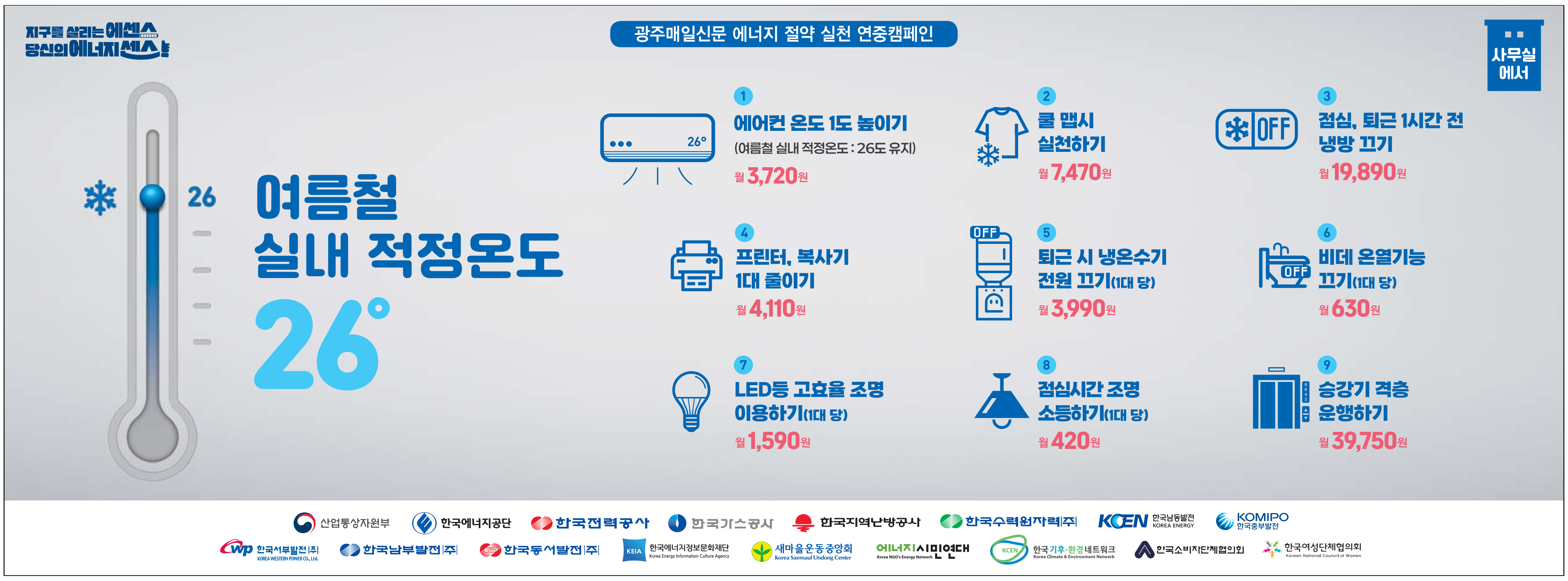
강 시장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행선이 지속돼 재의를 요청했다”며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면 민선 9기 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고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별도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민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의 뜻을 겸허히 존중한 결과”라며 “재의 요구안 부결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재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 입장을 내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광주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CMYK